

진도 의료 인프라 ‘전남 최하위’

의료 컨설팅회사 엘리오앤컴퍼니 노인 비율 높아 만성질환자수 많아 “공공·민간 영역 투자 확대 시급”

전남 진도군의 의료 환경이 전남 지역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진도군은 인구가 더 적은 곡성군, 구례군 보다 의료 환경이 더 낙후해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투자 확대 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표 참조>

의료·공공 분야 전문 컨설팅 회사인 ‘엘리오앤컴퍼니’가 2016년 기준 정부 통계 자료를 토대로 전국 자치단체 ▲건강 성과 ▲질병 예방 ▲의료 효율 ▲의료 공급 등 4개 영역의 25개 세부 지표를 분석한 결과인 ‘대한민국 건강 랭킹’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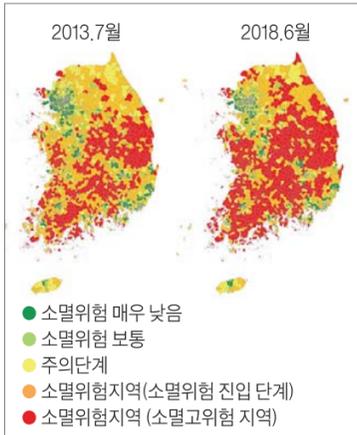
이 4개 영역을 종합 평가한 결과 전남에서 신안군(37.6점)과 완도군(37.2점) 다음으로 진도군(36.8점)이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남 17개 군 지역주민의 기대 수명은 80.2세로 전국 평균 보다 조금 낮았다.

특히 주민들의 실제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건강 성과’ 영역 가운데 “내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에서 진도군(32.7점)은 해남군(31.2점)과 함께 전남 최하위를 기록했다.

진도군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 만성 질환 환자 수가 전국 평균 보다 많은 것으

(3,463개 읍면동 기준 지방소멸위험현황)



로 나타났다.

진도군은 ‘건강 성과’ 영역에서 ▲인구 10만명당 간암 환자 수 전국 81위 ▲인구 10만명당 폐암 환자 수 76위 ▲인구 10만명당 당뇨병 환자 수 64위 ▲10만명당 고혈압 환자 수 전국 81위이다.

‘질병 예방’ 영역에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 전국 65위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최근 1년 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의 비율) 전국 73위이다.

이는 의료 인프라가 충분한지 보여주는 ‘의료 공급’ 영역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돼 의료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의료 효율’ 영역에서 ▲상대평균 입원 진료비 전국 66위 ▲평균

재원일수(내원) 전국 71위이다.

‘의료 공급’에서 10만명당 병상수는 전국 63위이다. 1년 중 병원에 안 가는 날수인 ‘건강 일수’에서 나타나듯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건강 일수가 긴 자치단체는 ‘구’가 많은 반면 건강 일수가 짧은 자치단체는 ‘군’이 많았다. 건강 일수가 긴 자치단체는 병원 안 가는 날이 2011년 조사 시작 후 7년간 230일 안팎을 유지한 반면 건강 일수가 짧은 자치단체는 2011년 조사 때는 110일 안팎이었으나 올해는 90일 안팎이었다.

특히 전남 17개 군에서 인구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고흥군(전국 73위)과 진도군(전국 76위)의 건강 일수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렬 중앙보훈병원장은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도 의료 시설과 인력을 충분히 확충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있어서 지역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여건이 되는 지역에선 선제적으로 건강관리를 해주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통해 질병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엘리오앤컴퍼니는 “재정 자립도가 최하위권인 전남과 재정 자립도가 상위권인 서울, 울산의 건강 랭킹을 비교했을 때 경제적 여건의 영향력이 절대적 요인 아니라는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남 진도=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경기도 자동차 불법도장업체 무더기 적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33곳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31곳 형사입건



경기도 특사경이 한 자동차 도장업체에서 카본흡착필터 교체없이 유해물질을 배출한 시설 등 불법사용을 단속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8월 21일부터 8일까지 도심지 주변에서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동차정비 공장 12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체 33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19개소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2개소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1개소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1개소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화성시 A사업장은 활성탄 흡착시설에, 대기오염물질 정화 기능이 전혀 없는 부직포로 된 일반 필터를 사용했다. B사업장은 방지시설에 필수적인 흡착용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고 페인트 가루를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용인시 소재 C사업장은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흡착용 활성탄 필터를 전부 빼놓고 방지시설을 가동하다가 적발됐고, 부천시에 위치한 D사업장은 차량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면서 문을 열어 놓고 페인트가루를 그대로 외부에 배출하다 적발됐다.

아파트 단지 및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수원시 E사업장은 방지시설이 설치된 도장부스가 있는데도 방지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제3의 장소에서 도장작업을 실시하다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가운데 31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도장시설은 벤젠과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배출해 주택가 등 도심에서 작업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직접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은 국제 암 연구기관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이다. /경기도=김승열 기자

경기도, 공공건설현장 감사... 11억 절감 ‘성과’

7개 기관 9개 대형공사장 현장 감사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사업장 적발 도로건설 현장선 중복공사비 발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20%~60% 정도의 공정률의 7개 기관의 9개 대형공사장을 감사해 6개 사업장에서 예산낭비 사례를 적발, 11억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또,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2개 공사장과 설계의 오류나 수량이 과다 계상된 7개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설계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공사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을 설계에 반영했는지, 부실공사 요인은 없는지를 중점 조사하기 위해 민간 전문감사관 8명과 공무원 8명 등 총 16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했다.

주요 사례는 도는 먼저 A시의 도로건

설현장을 찾아 중복 공사비 반영 사례를 발견해 예산 3억2700만원을 감액했다. 이곳은 설계당시에는 시행사측이 옹벽을 설치하기로 돼 있었지만, 착공이후 건축주가 옹벽을 설치하면서 해당 공사가 필요 없게 됐다. 도는 또 해당 도로의 중앙분리대와 길어깨 설치가 규정에 맞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시정 조치했다.

B사에서 시공 중인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에서는 순환골재와 순환아스팔트를 의무 사용하도록 하고, 당초 설계보다 줄어든 현장사무소 면적만큼 임대료를 감액하도록 해 2억9천1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경기도 C공공기관의 조경공사 현장에서는 하천과 철도구역 사이 완충녹지공간에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해 나무를 심도록 돼있는 기존 설계를 현실적으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과도하게 물가변동조정을 산정한 것도 지적해 예산 7천8백만 원을 절감했다.

C공공기관에서 실시중인 D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는 수로 설치에 필요한 PC압거를 시공하면서 설계와 다르게 잡석 기초의 부설 폭을 줄이고, 규격보다 큰 돌을 사용한 것이 발견돼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또, 잡석 부설량을 줄여 3억5천8백만원의 예산을 감액했다.

/경기도=김승열 기자 kimsy@



롯데백화점광주점 “올 겨울 가볍고 멋스러운 인조 무스탕 어떠세요?”

롯데백화점광주점이 4층 파스나매장에서 가을의류 상품 및 올 겨울 유행할 인기 아이템 인조 무스탕을 선보이고 있다. 인조 무스탕은 트렌디한 느낌은 물론 뛰어난 보온성으로 가볍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올 겨울 완벽한 겨울룩으로 여성고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색상은 블랙과 그레이 두 종류이며, 롱은 36만9000원, 숏은 29만9000원에 판매한다. /광주=봉채영 기자

광주 남구 필문 이선제 묘지 보물 지정 매안식

광주 남구는 지난 6월에 국가지정 보물 제1993호로 지정된 필문 이선제 묘지(墓誌·사신)의 보물 지정을 기념해 ‘필문 이선제 묘지 매안식 및 고대정수 축제’를 개최한다.



을 묘소에 묻는 것이다. 이날 문화재 국가지정을 알리는 고유제(告由祭)도 열릴 예정이다.

6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10일 원산동 필문 이선제 부조묘 및 고대정수 일원에서 국가보물 지정 기념 행사가 열린다.

필문 이선제 묘지 매안식은 이선제 선생의 신분과 행적 등을 새긴 묘지 복제본

조선시대 집현전 학사를 지낸 필문 이선제 선생의 행적 등을 담은 묘지는 높이 28.7cm와 장폭 25.4cm 크기로, 조선 단종 2년(1454년)에 만들어진 분청사기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

무안군 롯데아울렛 남악점 경로당에 에어컨 기증

전남 무안군 일로읍(읍장 정환중)은 지난 5일 롯데아울렛 남악점에서 일로읍 신정동 경로당에 노인들의 무더위 해소를 위한 에어컨을 기증했다고 전했다.

롯데아울렛 남악점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에게 에어컨을 설치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쉼터에서 쾌적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 /전남 무안=양수영 기자



롯데아울렛 남악점이 전남 무안군 일로읍 신정동 경로당에 에어컨을 기증한 후 어르신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무안군

담양군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 토요마켓’ 개장

담양군은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 창출을 위해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 토요마켓’을 오는 8일부터 정기적으로 개장한다고 6일 밝혔다.

죽녹원 맞은편 영산강 문화공원 분수대 주변에서 진행되는 ‘대숲맑은 담양 토요마켓’은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기적으

로 운영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나와 판매할 뿐만 아니라 시식과 홍보 행사도 함께할 예정이다.

군은 담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유통단계 없이 담양 대표 관광지에서 직접 판매함으로써 고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도시와 농촌 간 상생과 나눔 경영에 일조하는 직거래 장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 담양=봉채영 기자